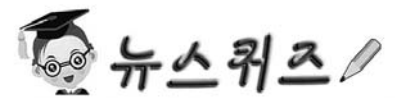




박소현의 섹.시.토크

사랑, 섹스리 스 지수표로 점점이 되나요?



자려고 침대에 누우려던 K는 침대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섹스리 스 지수표'라는 제목 아래로 뻣뻣한 문항들이 적힌 종이였다. K는 순간, 이것을 읽는 척이라도 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휴지통으로 던져 버려야 하나를 고민했다. 암만 생각해도 어떤 저의가 숨겨져 있는 종이라는 냄새가 강하게 났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K가 종이를 주워들기 무섭게 아내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섰다. K가 종이를 들고 있는 것을 목격한 아내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나다. 자신이 체크해 놓은 것 보고 열 좀 받으라는 말이다. 대놓고 말하지 못한 속엿말을 이 대답으로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당신, 나하고 섹스하는 게 지루해?" 잔뜩 부은 얼굴로 K가 묻자 아내가 약간 민중대는 말투로(K 귀에는 그렇게 들렸다) 대답했다. "지루한 건 아닌데 독창성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 "독창성 있는 섹스는 어떤건데?"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항상 남보다 하는 정상체위만 고집하는 게 사실이잖아. 그거 당신 열 받으라고 보여주는 거 아니야. 한번쯤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서로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말아야." "내 말은 당신이 어느 부분 오해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하는 말이야. 이 질문 봐봐. '얼마나 눈을 맞추고 섹스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당신은 '눈은 뜨고 하지만 눈을 맞추지는 않는다.'라고 대답했잖아. 우리가 왜 눈을 안 맞

춰? 나라면 1번, '서로 눈을 맞추면서 오르가슴에 도달한다.'에 체크하겠어." "우리가 언제 눈을 맞추면서 오르가슴에 도달했어?" "당신이 눈을 감고 있어서 내가 눈을 맞추려 애쓰는 걸 못 보았어?" 이번에는 K가 민중대는 말투로 대답했다. "그리고 이거 말아야. '섹스 도중에 욕구가 저하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왜 '때때로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 내가 하다가 중간에 못한 적 있어? 끝까지 못한 적이 있냐고?" 이렇게 되니 완전 섹스 청문회나 다름없는 분위기가 되었다. 하지만 아왕지사 말이 나왔으니 끝장을 보자는 생각도 들었다. "그건 어디까지나 내 느낌이야. 억울하면 당신도 체크해 봐. 솔직히 당신도 하다가 욕구가 떨어질 때가 있잖아. 왜 사람이 솔직하지가 못해?" 아내의 반박에 K는 더 화가 솟구쳤다. '솔직하

'섹스리 스 지수표' 체크해 보세요 '사랑' 아닌 '잠자리' 점수니까요 형식적 섹스에서 탈피해 좀 더 충만한 섹스를 위하여...

로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 내가 하다가 중간에 못한 적 있어? 끝까지 못한 적이 있냐고?" 이렇게 되니 완전 섹스 청문회나 다름없는 분위기가 되었다. 하지만 아왕지사 말이 나왔으니 끝장을 보자는 생각도 들었다. "그건 어디까지나 내 느낌이야. 억울하면 당신도 체크해 봐. 솔직히 당신도 하다가 욕구가 떨어질 때가 있잖아. 왜 사람이 솔직하지가 못해?" 아내의 반박에 K는 더 화가 솟구쳤다. '솔직하

게 하라구? 솔직하게 하라구?' 속으로 씩씩거리며 이 말만 주위 삼킬 뿐이었다. 아내가 체크한 답으로 점수를 더해본 결과에 의하면, K네 부부에게 내려진 상태는 '섹스가 잠들어 있다'는 것이다. 섹스를 하기는 하되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섹스만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제야 아내의 의도가 어느 정도 이해되는 것 같긴 했다. 결국 아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 짧은 결론이었던 것이다. 형식적인 섹스에서 탈피해 좀 더 충만한 섹스를 하자는, 뭐 그런 의도 아니겠는가?

그런데 나름대로 대안이라고 제시되어 있는 글을 읽어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자신감을 가지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라는 말인데, 이런 말은 굳이 전문가의 입을 통해 듣지 않아도 뻔하다. "다 봤어. 그래, 당신 말대로 한번쯤 생각해 볼만한 기회를 준 것은 사실이네. 그런데 말이야. 이 지수표 한 장으로 우리 관계가 정말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같은 것은 지수표에 없잖아." K는 나름대로 진심을 담아(물론 머리를 조금 굴리기는 했지만) 말했지만, 아내는 콧방귀를 꾸며 침대에 돌아누웠을 뿐이다. 그리고 말했다. "지금 사랑을 점수 매기자는 말이 아니잖아. 이걸 얼얼히 잠자리 문제라구. 괜히 문제를 오해하고 확대시키지 말라구." 그날 밤, K는 한방 맞은 듯 멍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다. <연애칼럼니스트>

91.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후보들은 27일부터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착수, 초반 판세 장악을 위한 서울이와 이슈 선점에 나서게 됩니다. 지난 1948년 초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이후 몇 대선은 몇 번째 치러지는 것일까요? ①17대 ②27대 ③37대 ④47대

참여 방법 /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30일 (음 10월 21일 戊辰)

Table with 12 rows of horoscope information for different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including birth dates and lucky/unlucky numbers.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Band) featuring a woman's face and contact information.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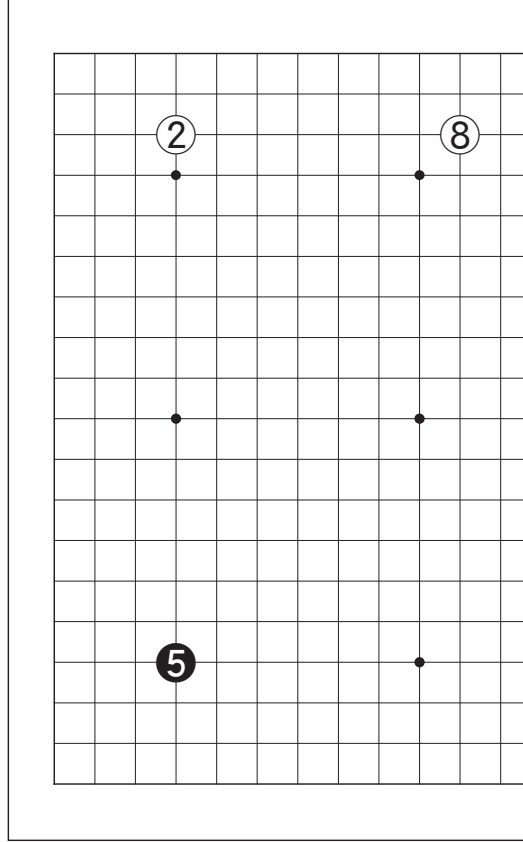
아나운서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은 연예인 못지 않다. 최수현(25) 아나운서가 KBS 상상 플레이에서 원더걸스의 '벨리 댄스'를 선보인 뒤 이 장면을 보려는 네티즌들이 몰리는가 하면 최현정(28) 아나운서는 MBC 교양 프로그램 '생방송 화제 집중'의 '웃겨야 사는 남자'를 소개하는 코너에

서 방송 화면과는 다른 최 아나운서의 개인적 유행이 그대로 방송되면서 물의를 빚었다. 최 아나운서가 화장실에 가면서 마이클를 깨달라는 제스처를 취했으나 제작진이 이를 잘못 알아들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최 아나운서는 공식 사과했다.

이제니 섹시 화보 클릭클릭

브라운관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이제니(28)가 섹시한 포즈에 불꽃같은 몸매가 드러나는 섹시 화보집을 공개하면서 그녀의 화보를 보려는 네티즌들의 발길이 잇따랐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27)는 MBC '황금어장'의 '무릎파도사'에 출연, 연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 많은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다. 결별설이 퍼지면서 하하(본명 하동훈·28)와 안혜경(28)도 검색어에 올랐고 영화 '만남의 광장'을 비롯해 '공필두' '구미호 가족' '파송송 계란탁' 등에 출연한 영화배우 이상훈(39)과 일본 J.LPGA 투어 한지연(33)의 결혼 소식도 관심을 모았다. 이 외의 화보 심은하(35)의 둘째 딸 출산 소식을 비롯해 할리우드 팝스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잡지 마리끌레르에 공개한 만삭 누드 사진 등도 화제가 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



제88회 전국체전 8월 8일 백운초등학교 체육관에서 16개 시도 300여명의 선수단이 총출동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바둑이 전국체전 종목이 되어 대회를 시작한 것은 85회 전주대회 때부터 벌써 4회째가 된다. 아직은 준 가맹단체로 정식종목은 아니지만 2010년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된다는 2008년 북경올림픽에도 체스, 브릿지 등과 더불어 번외계임을 열기로 해 바둑이 두뇌스포츠로 인정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전국체전 정식종목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바둑은 여성일반부 결승전으로 여성 아마최강들의 실력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한판을 소개한다. 결승에는 모두 경기도 선수가 올라왔는데 이번 대회의 여성일반부는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활승이 경기도가 종합우승을 차지하는데 혁혁한 공훈을 세웠다. 두 선수는 한국기원의 연구생 출신으로 명지대학교를 졸업했다. 비록 프로그 되는 데는 실패했지만 정통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명승부가 예상된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제88회 전국체전 여성 아마 최강들의 한판 1보(1~9) 白 이수빈 5단 (경기도) 黑 조경진 5단 (경기도)

바둑소식 (Baduk News) section containing news about the 9th National Baduk Championship and other baduk events.

Can I make a reservation to~? ~에 예약할 수 있습니까? C: Thank you for calling Canada Airlines. A: Please wait while we transfer you to the reservation desk. B: Canada Airlines, my name is Nancy, may I help you? A: Yes. Nancy, can I make a reservation to Victoria on December 28? B: Of course. Economy class or business class? A: Economy class. C: 캐나다 항공에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A: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약 창구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B: 캐나다 항공, 낸시입니다. 12월 28일, 빅토리아에 예약이 가능할까요? A: 예, 네시 씨, 12월 28일, 빅토리아에 예약이 가능할까요? B: 네, 됩니다. 이코노미 좌석입니까? 비즈니스 좌석입니까? A: 이코노미 좌석으로 부탁드립니다. * transfer : 연결하다 * 성함이 어찌 됩니까? = Can I have your name, please.

胸わくわくさせて楽しみにしているんだ。 가슴 두근거리며 기대하고 있어. A: 君(きみ)のうちでは、夏休(なつやす)みどっか行(い)くの。 B: 僕(ぼく)うちではね、毎年(まいとし)になると、北海道(ほっかいどう)のおいしいちゃんのうちへ行くことになっているんだ。 A: そう、それは楽(たの)しそうだね。 B: そうなんだ。今(いま)から胸(むね)わくわくさせて楽(たの)しみにしているんだ。 A: 너희 집에서는 여름휴가 어디 가니? B: 우리 집은 매년 여름이 되면 홋카이도의 활아버지 택으로 가기로 되어 있어. 여러 동물과 놀 수 있거든. A: 그래? 그게 재밌을 것 같구나. B: 그래. 지금부터 가슴을 두근거리며 기대하고 있어. 夏休(なつやす)み: 여름휴가 楽しみにしています: 어떤 일에 대해서 즐거운 기분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

你喜歡什麼? 년 뭘 좋아하니? A: 你喜歡什麼? Nǐ xǐhuan shénme? 나 喜悅 什麼? B: 我喜歡听音乐。 Wǒ xǐhuan tīng yīnyuè. 난 喜悅 聽 音樂. A: 你喜歡什麼音樂? Nǐ xǐhuan shénme yīnyuè? 나 喜悅 什麼 音樂? B: 我喜歡流行歌曲。 Wǒ xǐhuan liúxíngqǔ. 난 喜悅 流行歌曲. A: 년 뭘 좋아해? B: 난 음악 듣는 걸 좋아해. A: 무슨 음악을 좋아해? B: 가요를 좋아해. 喜歡 [xǐhuan] 좋아하다 音樂 [yīnyuè] 음악 流行歌曲 [liúxíngqǔ] 가요

折衝(절충) 격을 절, 찌를 충. 절충(折衝)은 '준조절충(樞紐折衝)'에서 유래한 말로 '장끝을 꺾어 막는다'는 뜻이다. 즉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상대와 교섭하거나 담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막판 절충을 벌이다', 또는 '막후 절충을 벌이다'는 경우이다. 한편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에 절충(折衷)이라는 말도 있다. 이 말은 어느 편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이것과 저것을 취사(取捨)하여 그 알맞은 것을 얻는다는 의미이다. 즉 서로 다른 사물이나 의견, 관점 따위를 알맞게 조절하여 서로 잘 어울리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양측의 의견이 절충되다'는 경우이다. 준조절충(樞紐折衝)의 준조(樞紐)는 '솔통과 도마'라는 말로 솔자리(연희석)를 의미한다. 전정터에 나가지 않고 연희하는 솔자리에서 유연한 담소(談笑)로 적의 장끝을 꺾어 막는 것이 준조절충이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교섭으로 일을 유리하게 담판·충정함을 이르는 말이다. 이 준조절충의 모델은 춘추전국시대 제(齊)나라를 강국으로 만든 안영(晏嬰)이다. 외교 수완이 뛰어난 안영을 준조지사(樞紐之師)라고도 부른다. (晏子春秋·內篇)

한자 이야기 <662> <한어원(韓學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